

# 향후 中國近代文學 연구에 관한 몇가지 건의

민정기\*

1. 한국에서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위치하는 자리
2. 中國近代文學 연구에서 地域性에 대한 고려
3. 문학활동 주체의 성격에 관한 문제
4. 맺는말

## 1. 한국에서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위치하는 자리

90년대 들어와 국내에서는 ‘근대’와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형성된 ‘근대’ 담론은 그 맥락이 단일하지는 않아, 한편으로는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담론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것도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계승의 방향을 띠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적어도 직접적으로 ‘근대’나 ‘근대성’을 운위하는 논의는 다소 수그러들은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저간의 논의들이 우리가 경험한 ‘근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우리의 ‘근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좌표를 제대로 밝혀주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인 논쟁으로 발전한데서 기인한 듯 하다. ‘근대’-‘근대성’ 토론은 결국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근대’를 해명하기 위해 고안한 여러가지 이론들의 소개장으로 그친 감조차 없지 않았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입장들이 서로를 온전히 포용하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어쩌면 애당초 어려운 일이었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간의 논의를 통해 ‘근대’를 파악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하며, 한편 일정정도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1)</sup>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온전한 모습에 대한 탐구 그 ‘기원’과 조건에 대한 탐구는 인문학과 사회학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면서 또한 그것을 비추이는 거울이기도 한 문학에 대한 탐구는 그 주요한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를 둘러싼 근간의 논의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 국학계에서 이에 줄곧 관심을 갖고 천착해 온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中國의 근대나 근대문학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여야 하는가.

中國과 日本은 ‘우리’의 延長이면서 또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자 ‘廣角鏡’<sup>2)</sup>이다. 우리와 이 두 이웃은 오랜 동안 많은 것을 공유하였으면서도 또한 사뭇 이질적인 조건하에서 ‘근대’를 맞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삼자를 아울러 살피는 것의 의미와 유효함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인문학의 각 부문에서 제기되어왔거니와 근자에는 ‘동아시아’ 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sup>3)</sup> 우리의 근대에 대한 탐구에서 역시 동아시아

1) 일례로 우리 근대문학의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민족문화사연구소’에서 심포지움의 결과물로 엮은 《민족문화와 근대성》(문학과지성사, 1995)의 여러 글들 특히 이선영, 최원식 두 분의 글에는 근대와 근대성에 대한 자신들의 기왕의 관점을 확인하되 유효한 다양한 시각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보인다.

2) 거울과 광각경의 비유는 유중하, 〈중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다보니〉(《중문학 어떻게 공부할까》, 실천문화사, 1994, 49쪽)를 볼 것.

3) 몇몇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동아시아 논의는 《문학과사회》 1996년 겨울호와 《상상》 1997년 여름호를 통해 논의의 일단계 정리가 이루어지고 향후 토론의

아직 시각은 매우 요긴한 것이며 또한 ‘동아시아’가 유효성을 떨 수 있는 시각으로 제기된 배경을 고려해 볼 때<sup>4)</sup> 동아시아론의 주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다름아닌 ‘근대’인 것이다.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는 우선 이와 같은 큰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문학이 인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에 대한 탐구는 넓은 의미의 역사 연구의 한 부분이며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탐구는 中國의 근대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 가는 요긴한 방법이다.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는 우선 이 시기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특히 이 시기 중국에서의 ‘문학’ 개념/제도의 성립 과정을 사회사적, 정신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것이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주요 테마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문학은 인간 삶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삶을 독특하게 비추이는 거울이기도 하다. 中國近代文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성격을 띠는 ‘이행’의 시간을 헤쳐간 中國인들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이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sup>5)</sup>

진척을 예비하는 형국이다. 《상상》의 같은 호에서는 부록으로 〈90년대 국내 월간 및 계간지 동아시아 관련 목록〉을 실고 있으며, 문학과지성사에서는 서암재단과의 협력하에 1995년부터 ‘동양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 4) 성민엽,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1. 무엇이 문제인가’(《상상》 1997년 여름호, 81-86쪽) 참조.
- 5) 기실 이 두 방향은 서로 상보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다루어진 예로 마샬 버먼(윤호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이해 -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현대미학사, 1994)와 가라타니 고진(박유학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종민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만 하다: “……‘근대’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를 넘어 ‘근대’를 감지하는 주체의 의식 문제 혹은 의식 속에 내재한 ‘근대(성)’의 문제이다. 특히 사회과학이 아닌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 ‘근대’의 문제는 ‘문제상황’ 속의 ‘모순의 복합체’인 주체가 자신의 ‘현재’에 조제하는 무수한 대립, 갈등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경계를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 이행원리 혹은 내면원리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유해야 할 것이다.”(〈梁啓超 文學論의 批判的 檢討〉, 《韓·中文學의 傳統과 近代》, ‘第30回 東洋學 學術會議 發表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97. 12, 각주

이와같은 맥락에서 中國의 근대 그리고 근대문학에 대한 주체적 파악은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갖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中國史 연구에서 근대사 연구는 하나의 주요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70년대 이래로의 閔斗基 선생의 선구적 연구가 돋보이며, 뒤를 이어 정치사, 사회사 등 제 영역에 걸쳐 비교적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中文學界에서는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가 어떤 자각성을 띠고 유의미한 연구영역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의 일이며<sup>6)</sup> 근래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우리 인문 사회과학계의 탐색과의 결합 가능성이 검토되며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중국근대문학 연구를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자료는 물론이며 연구의 방향 역시 주로 中國의 학계가 제공하는 바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연구자들은 기대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中國 측이 제공하는 참조체계, 근대문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축적된 국문학계에서 제공하는 참조체계, 그리고 근자의 ‘근대’ 담론이 제시하는 결코 단순치 않은 참조체계 사이에서 자기 규정을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고, 그 고민의 흔적은 80년대 후반 이래의 여러 편의 학위논문<sup>7)</sup>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와같은 고민의 결과는 中國의 학계가 제공하는 참조체계에 대한 일정정도 비판적 태도의 견지와 적절한 선에서의 절충이라는 결과로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에 대해서는

10번 참조)

- 6) 이 이전에 행해진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초의 중국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시기의 소설 특히 魯迅이 ‘四大譴責小說’이라고 칭했던 작품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근대’라고 특별히 칭하거나 그것을 ‘근대문학’이라고 여겨 그 ‘근대적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의 문학은 흔히 ‘晚淸文學’ 혹은 ‘淸末文學’이라고 불리며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테마 중심의 연구가 정착되지 못하였던 국내 중문학계의 전반적 경향 때문이기도 하겠으며,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五四 이후의 문학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그 선행 시기에 대한 연구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 7)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전형준, 《新文學 時期의 리얼리즘 理論에 대한 研究》(서울

당시 제한된 자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中國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지만, 연구자들이 여러 참조체계들을 주체적으로 소화하고 자료를 다루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구성해 내는 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이후로의 中國 ‘근대문학’의 연구의 범위와 방향이 초보적이거나 제시되었다. 주요 작가와 문학현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의 中國近代文學의 연구가 주체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고 필자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거칠게나마 우리의 입장에서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국내에서의 中國의 ‘근대문학’ 연구는 상당 정도 중국 본토에서의 연구의 전제들이나 개념들을 답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근대’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참신하긴 하지만 선부른 적용으로 견실하고 온전한 象을 구성하는데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 또한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 그리기가 좀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개념과 용어의 규정, 시기 구분 문제 등을 비롯 하나씩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내에서의 앞으로의 연구와 관련하여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두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들은 필자가 보기에 中國近代文學 연구의 기본 틀과 관련된 것이면서도 용어라든지 시기 구분 문제들과는 달리 별반 토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다.<sup>8)</sup> ‘中國近代文學’이라 했을 때 그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의 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2); 이욱연, 《郭沫若 徐志摩 문학의 근대의식 비교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2); 김영문, 《中國 新文學에서 浪漫主義 變容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2); 홍석표, 《中國의 近代的 文學意識 形成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8); 심형철, 《近代轉換期 中國의 小說論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8) 등에 반영되어 있다.

8) 중국근대문학의 용어, 분기, 성질 등에 관한 중국내에서의 정리는 《中國近代文學

國文學을 두루 칭할 수 있겠지만 본고의 2장과 3장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1890년대로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의 문학을 지칭한다. 필자는 이 시기에 新舊東西의 요소가 융합하며 이전의 것과는 다른 형질의 문학제도과 문학관념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中國近代文學 연구에서 地域性에 대한 고려

### 2-1.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점의 하나는 中國을 차별성 없는 하나의 단위로 놓고 근대 시기의 문학현상을 논하는 경향이다. 中國의 문화와 문학이 그 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분모를 갖는 통일성을 지닌 전통을 이어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sup>9)</sup> 이 시기의 문학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中國’을 전체로서 운위하는 과정으로서 혹은 방법으로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요긴하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晚淸時期 中國의 정

---

研究概論》(天津教育出版社, 1992)이 자세하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연구의 전망을 제기한 최근의 글로는 임춘성, 〈중국 근현대 문학사론의 검토와 과제〉(《中國現代文學》第12號, 中國現代文學學會, 1997)와 같은 이, 〈韓國에서의 중국 근현대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第17次 中國學 國際學術大會 발표논문요지 - 한국에서의 中國學 研究의 成果와 展望》, 韓國中國學會, 1996. 8)를 볼 것. 기왕 연구들의 기본 전제와 문제들, 개념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로는 李琮敏, 〈중국 근대문학 연구의 반성과 경계넘기〉(《韓國中國語文學聯合學術大會發表論文 韓國的 中國語文學 研究의 位相과 展望》, 韓國中語中文學會/中國語文學研究會, 1998. 11. 28.)를 볼 것.

9) 이 면에 대해서도 슬한 토론이 전개될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가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秦, 漢의 통일 이래 ‘중국’ 땅을 지배한 모종의 문화적 핵심질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인정하기로 한다.

치, 경제, 사회 등 제영역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크게 보아 동남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상황이 달랐으며, 새로운 문물과 사조의 주요 유입지였던 廣州와 上海 지역 역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역사학 등 인문학의 여타 분야를 살펴보면 中國 '근대'의 각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이와같은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외의 中國近代史 연구를 보면 상당히 넓은 권역을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부터 비교적 작은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 등 다양한 주제가 지역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지금까지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성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축으로 취급되지 못하여 관련 연구의 성과가 여타 인문사회학의 분야의 그것에 비할 때 적은 편이다. 문학을 그것이 생산되는 환경, 조건의 기계적 반영물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인문학으로서의 문학 연구가 방기할 수 없는 것이다. 晚淸時期 서구와의 접촉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건이 中國近代文學의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상정한다면 이 시기 문학의 연구에 지역성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조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조건들이 中國近代文學의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역시 지역성의 문제는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明清代의 사회와 문화의 실상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中國에서 과연 문학상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올바르게 파악

10) Jonathan Ocko, *Gentry-Official Conflict in the Restoration Kiangsu Countryside*(Reform in Nineteenth Century China,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6); Paul Cohen, *The New Coastal Reformers*(같은 논문집); 李允碩, 〈明末의 江南'士人'과 文社活動〉(《東洋史研究》 제57집, 東洋史學會, 1997년 1월)과 같은 제목의 소논문들이나 Hillary J. Beattie, *Land and Lineage in China - A Study of Tung-Ch'eng County, Anhwei, in the Ming and Ch'ing Dynastie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金衡鍾, 〈清末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8)과 같은 저술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기 위해서 광대한 中國을 의미있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해당 시기 문학의 추이를 살피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中國 ‘근대문학’의 어떤 보편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려 한다면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中國의 근대문학을 지역별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와같은 고찰을 위한 유의미한 지역들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근대 시기의 中國을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2-2.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中國을 연구하는 것이 비교적 활발한 분야로는 문화사를 비롯한 역사학의 분야이다. 근래 中國 내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齊魯, 吳越, 荊楚, 三晉, 巴蜀 등의 문화권역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中國文化라는 것이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지역의 문화가 경합을 벌이며 충돌, 융합하던 春秋, 戰國시기의 제 권역을 기준으로 각 문화의 원류와 이후 지역문화로서의 역사를 탐색하는 방법이다.<sup>11)</sup>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 분류를 明代 이후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논의에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또 하나는 현재 통용되는 행정단위인 ‘省’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살피는 것이다. 현행 여러 省의 경계는 대체로 明清代를 거치면서 확정된 것으로 그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省을 지역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연구의 일례로 梁啓超는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飲冰室文集》之四十一)에서 清代로부터 民國初에 이르는 동안의 학술 경향을 당시의 각 省을 기준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 省은 단순한 행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사회경

11) 이러한 탐색이 결집된 것으로서 遼寧教育出版社의 ‘中國地域文化叢書’를 꼽을 수 있으며 上海人民出版社의 ‘中國文化史叢書’에도 그 일부로서 《楚文化史》와 같은 지역문화사가 포함되어 있다.



제, 문화의 경계를 포함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사나 문학사를 운위함에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랜동안 유효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단위로 여겨져온 ‘江南’의 경우 明清代에도 몇 개의 省에 걸친 지역이었고 현행의 행정구역상으로도 江蘇, 浙江, 安徽 각 省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省에 따른 지역 구분 역시 참조는 할 수 있되 근대문학을 지역별로 탐구하기 위한 온전한 단위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필자는 近代 中國의 문학을 지역으로 나누어 연구하기 위한 지역의 구분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다: 1. 전통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 2. 서양과의 접촉 등으로 조성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 3. 사대부(문인)의 삶의 양태와 성향; 4. 문화 전통; 5. 학술, 사상의 전통; 6. 문학 풍조등.

지역의 구분에 고려해야 할 이들 조건들은 바로 中國近代文學의 형성을 고찰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조건들이기도 하다. 中國의 근대문학을 운위함에 지역을 고려해야 함도 바로 이러한 제조건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며 중국문화사의 문화 권역들, 明清史 및 中國近代史의 일반적 사실들, 지역성을 고려한 中國社會經濟史 연구의 성과들<sup>12)</sup>, 학술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sup>13)</sup>, 문학사에서 살필 수 있는 지역성을 띠는 문학 풍조<sup>14)</sup> 등을 참조하여 근대시기 중국의 지역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5)</sup> 이를

12) 陳樺, 《清代區域社會經濟研究》(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G. William Skinner 가 주도한 중국 도시에 관한 연구들; Hill Gates, *China's Motor - A Thousand Years of Petty Capit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등.

13) 梁啓超,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飲冰室文集》之四十一); 楊念郡, 《儒學地域化的近代形態 - 三大知識群體互動的比較研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7; Benjamin A. Elman,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등.

14) 각종 문학사의 서술에서 추출 가능하며,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선구적 연구 성과들 역시 근거가 되었다.

15) 글 끝의 <표: 清代-近代 지역 특성 비교>를 참조.

바탕으로 위의 조건들이 유의미한 변별성을 띠는, 근대 중국의 문학을 논의할 적절한 지역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1. 北京 지역 2. 湖湘 지역 3. 江南 지역 4. 上海 지역 5. 福建, 臺灣 지역 6. 嶺南 지역(珠江三角地) 7. 기타 광범위한 내지 배후지역.

1. 北京 지역: 옛 燕趙 문화권에 속하며 明清代 정치의 중심으로 지배자의 보수적인 학술관념, 문학관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철되었던 지역이기도 했다. 문화적 활기에 있어서는 江南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시 전국의 문물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특히 20세기 들어와서는 과거제의 폐지와 근대적 학제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지식층 형성의 중심이 되어 신문화 운동이 최초로 일어나고 가장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다.

2. 湖湘 지역: 湖南 湘鄉, 長沙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荊楚 문화권에 속한다. 이 지역의 사대부들은 상당히 정통적인 지향을 보여 清代에도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理學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고 문화적으로도 보수성향이 강하였다. 曾國藩이 太平天國을 진압하고 정국의 실세로 등장하면서 후기 桐城派(湘鄉派)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晚清時期에는 理學을 바탕으로 서양 학술을 흡수하여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유를 한 譚嗣同같은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變法論의 주요 발생지 가운데 하나였다.

3. 江南 지역: 長江 하류 이남의 太湖 주위 지역과 錢塘江 하류 양안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옛 吳越 문화권에 속한다. 南朝가 이 지역에 도읍한 이래 宋代를 거치면서 中國의 경제, 문화, 학술의 가장 생산력 있는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宋代 이래로 상업경제, 도시문화가 가장 번성한 지역으로서 雅俗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清代 考證學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으며 근대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가장 번성한 조약항인 上海를 곁에 두고 있음으로 해서 서구근대적인 문물과의 접촉이 용이했던 지역으로 소설가를 대거 배출하였다. 新文化運動 시기에 國故派가 주로 활동한 공간이기도 했다.

4. 上海 지역: 개항 이전에는 江南 권역에 속한 항구였던 上海는 19세기

중반 이후로 中國의 중심 무역항이 되었으며 대규모의 조계가 형성되는 등 특수한 조건들이 성립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 국제적 도시로서 上海는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中國近代文學을 논의함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江南 지역의 사회문화적 전통의 배경 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福建, 臺灣 지역: 臺灣을 포함하는 閩 지역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외상업 활동이 전통적으로 발달했던 지역으로 江南이나 嶺南과는 또 다른 독특한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갖고 있던 지역이다. 林紓, 嚴復과 같은 두드러진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근대문학의 장에서 바로 인접 지역인 江南 지역과 같은 활발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서인지 탐구할 만 하다. 근대 시기에 식민지 경험을 하기도 했던 臺灣은 일찍부터 방언의 서면어화 움직임 등 대륙과는 사뭇 다른 지향의 문학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國民黨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대륙의 中國과는 다른 사회 체제 하에서 근대 실험을 해 온 臺灣은 특히 하나의 지역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6. 嶺南 지역: 中國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변방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廣州가 明清代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국가의 유일한 공식적인 대외무역 창구로 기능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특히 珠江三角洲 지역은 제2의 江南의 형국을 이루었다. 문화적, 학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지만 晚清時期에 江南에서 단초가 형성된 今文經學이 이 지역에 수입되어 지역적 학풍과 결합하여 康有爲의 독특한 학문으로 귀결하였고 근현대 유력한 지적 사조의 발원지가 되었다. 이 지역에 속한 香港이 근래 中國에 반환되었는데, 上海가 江南 지역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특수성을 띠는 것처럼 식민지로서 독특한 근대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 위에서 든 지역들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내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기 문화적 연원과 지역적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문학에 관련된

조건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공통성을 띠는 내지 배후지역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3.

中國의 근대가 여러 요인들의 중층적인 관계 위에 형성되며 그러한 관계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할 때 근대 中國의 여러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中國近代文化의 가장 정수라 할 만한 문학을 고찰함에도 꼭 고려되어야 할 점임에도 최근까지 中國近代文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구, 저술은 많지 않다.

지역을 고려하여 근대 시기의 문학현상을 다룬 글로 필자가 발견한 가장 이른 것은 汪辟疆선생의 〈近代詩派與地域〉이다.<sup>16)</sup> 근대 詩歌의 흐름을 ‘湖湘派’, ‘閩贛派’, ‘河北派’등 여섯 파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자연지리적 풍토와 지역 詩風과의 관계에 대한 개괄에 이어 주로는 해당 시기의 詩壇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詩人들의 계보를 엮어내고 있다. 이후로 이런 식의 접근이나마 발견하기 힘든데 문제의식의 부재 때문이기도 했겠으나 80년대 이전까지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中國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sup>17)</sup>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자국 근대문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저술이 차츰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몇 종의 ‘지역근대문학사’(혹은 ‘지역문학사’의 근대편)를 들 수 있다. 1993년 上海人民出版社에서 나온 《上海近代文學史》(陳伯海, 袁進 主編)는 문학 현상을 上海라는 특수한 공간의 성격과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조건들

16) 이 글은 1934년에 대학 강의를 기초로 처음 작성된 이후로 여러 번 수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南京大學古典文獻研究所에서 정리하여 上海古籍出版社에서 펴낸 《汪辟疆文集》, 1988, 275-324쪽에 실려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줄고, 〈중국에서의 자국 ‘근대문학’ 연구 개황〉(《자료와 소식》 제4호, 중국현대문학학회, 1994년, 52-56쪽) 참조.

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 지역을 단위로 문학사를 기술한 시도가 새롭지만 전체적인 짜임이나 서술의 엄밀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가령 上海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제 조건들과 소설과 문장의 추세에 관한 서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詩의 영역에서는 어째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6년에 출판된 《廣東近代文學史》(鍾賢培, 汪松濤 主編, 廣東人民出版社) 역시 근대 시기 廣東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조건들을 부각시키며 廣東 출신 인사들의 지역 안팎에서의 문학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엇비슷한 조건들 하에서 어째서 上海에서와는 달리 廣州에서는 소설이 것처럼 흥기하지 못하였는지, 소설가들을 江南 지역에서처럼 많이 배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嶺南文學史》(陳永正 主編, 廣東教育出版社, 1993)와 같은 지역문학사의 근대편의 서술 역시 엇비슷한 기조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접근과 서술의 폭을 넓힌 것은 분명하지만 검토되어야 할 제조건들에 대한 그리고 그 조건들과 문학 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서술의 충실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시기구분론 등 기왕에 자국 근대문학 연구를 지배해 온 문체의 소지가 있는 전제들이 그대로 사용됨으로서 지역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 시기 문학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충분한 기여를 하는데 지해가 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문학사 저술들은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문학사에 접근한 것이라기보다는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확립 나아가 우월성에 대한 확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sup>18)</sup> 특히 이들 문학사는 근자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中國 지식인

18) 근래 상해에서는 上海書店出版社 등 여러 출판사에서 근대 상해 사회의 재부문에 대한 다양한 저술들을 내놓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廣東教育出版社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嶺南文學史》외에 葉春生, 《嶺南俗文學簡史》(1996)를 내놓았고 廣東人民出版社에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廣東近代文學史》를 포함하는 방대한 총서를 발행하고 있다.

의 근대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근대, 근대문학의 보다 면밀한 이해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위와같은 점들 외에도 현재까지의 이러한 문학사적 서술이 보다 충실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성을 염두에 둔 접근에 관한 일반론이 성숙하지 못한 점과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각론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다소 극복한 연구 성과로서 ‘二十世紀中國文學與區域文化叢書’(嚴家炎 主編, 河南教育出版社)를 들 수 있다. 이 총서를 통해 발간되고 있는 연구들은 지역성과 관련된 무거운 테마를 설정하여 다룸으로써 비교적 깊이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 2-4.

인문학 여타 영역에서의 기왕의 성과들을 참고하고 지역 연구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함정, 즉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전체로서의 中國을 이해하는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sup>19)</sup>을 경계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中國近代文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다 잘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이런 식의 연구는 문학 활동에 특유한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발현 양상이 있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문학 행위의 주체의 문제를 여하히 다룰 것이냐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앞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각 권역 별로 근대 시기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이 문학 행위의 주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 주체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내면화하며 문학에 대한 관념, 활동상의 추이를 보이는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이와같은 상황-주체의 관계가 어떻

19)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지역 연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소흥 출신 막료의 전국적 조직망과 청대 행정, 관료 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James H. Cole의 시론적 연구인 *The Shaoxing Connection - A vertical Administrative Clique in late Ch'ing China*(*Modern China*, July 1980)의 서두에 매우 명료하게 지적되어 있다.

게 문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해 가는지에 대한 고려가 행해져야 하겠다. 또한 오랜기간의 축적을 거쳐 형성된 보편적인 전통문학관이 어떻게 이 시기 각 지역에서 특수하게 현현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 점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려가 문학행위의 '주체'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이러한 문학사회학적 탐구에서 상황과 문학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에 대한 고려는 다소 소홀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앞서 논급한 中國에서 출판된 몇개의 지역문학사의 경우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으로 문제 삼을 中國近代文學 논의에서의 행위 주체의 성격 규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 3. 문학활동 주체의 성격에 관한 문제

#### 3-1.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中國近代文學을 연구함에 문학활동을 하는 주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中國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답습하고 있는 '근대문학'의 범위 설정 및 내부 분기론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中國 학계에서는 대체로 鴉片戰爭에서 五四新文化運動 전후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기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近代'로 그 이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의 기간을 '現代'로 나누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생산된 문학을 '近代文學', '現代文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 서술상의 시기구분론에 맞추어 '近代文學' 내의 소시기구분이 또다시 이루어지는데, 논자에 따라 구체적인 분기의 연대와 각 시

기를 가리키는 데 쓰는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틀로 ‘近代文學史’를 다루고 있다: 즉, ‘鴉片戰爭을 전후로 한 지주계급 개혁운동 시기의 문학’-('太平天國의 문학')-‘戊戌變法을 전후로 한 자산계급 개량운동 시기의 문학’-‘辛亥革命을 전후로 한 자산계급 혁명운동 시기의 문학’의 순으로 ‘近代文學’이 ‘現代文學’을 향해 발전해 나아갔다는 식이다.<sup>20)</sup>

위와 같은 시기 구분론에 의하면 각 단계를 대표하는 문학행위의 주체는 ‘지주계급에 속하며 개혁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 ‘자산계급에 속하며 개량지향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계급에 속하며 혁명지향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이 시기 문학과 문학 생산 담당자들의 관계를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하며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中國 ‘근대 시기’ 주요 문학 담당층을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자. 明清代 그리고 근대 시기의 中國 사회경제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사실상 위와같이 문학 담당층을 규정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계급 설정은 이미 재검토에 대상이 되어있다. 宋 이래로 문학의 주된 생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인층을 과연 지주계급이라고 단순히 지칭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거나 變法維新運動과 辛亥革命의 주체가 되었던 층을 과연 사회경제적으로나 의식형태상으로나 자산계급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 역시 의문이다. 위와 같은 문학사의 분기와 단계별 주체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毛澤東이 ‘新民主主義論’을 통해 천명한 근현대 혁명사의 발전단계론에 입각한 것인데, 中國 내에서도 근래에는 근대 문학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식으로 그 주체를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具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저네들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문학사 서술과 敎學의 장에서 이

20) 조금씩 입장을 달리 하는 ‘근대문학’의 범위와 내부 분기에 관한 90년대 초반까지의 중국내 논의와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본고 각주 9번에서 제시한 글들 참조.



러한 편향이 사라지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왕의 문학사 서술에서 이와같이 성격 규정한 주체와 그 주체들이 생산한 문학의 성질 간에 어떤 필연적 연관이 있는지, 각기 다른 단계를 대표하는 각기 다른 성격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문학은 과연 어떤 질적 차이를 갖는 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명쾌한 설명을 발견하기 힘들다. 우선 이들 문학사는 크게는 개량파나 혁명파의 ‘자산계급적’인 기반은 과연 어떻게 문학 현상과 관계하는지, 그것은 전통시기의 ‘지주계급’이 문학과 맺던 관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문학이 위와같이 단계적으로 현대문학을 향해 발전한 것이라면, 소위 혁명파의 문학이 소위 개량파의 문학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심지어 더 보수적인 면(혹은 국수적인 면)을 띠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점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다분히 기계적인 계급 분류와 성격 규정에 입각한 기존의 문학사 서술과 개별 작가들에 대한 연구들은 ‘진보적 주류’에 대한 ‘보수적 반동’이라고 간단한 규정을 통해 많은 문인들과 큰 부분의 문학 현상에 대해 왜곡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同光體 宋詩派에 대한 평가들이다. 이 일파에 대해서는 清代 내내 계속되어왔던 宋詩 지향의 흐름상 그것의 위치, 그것의 정신사적 의미 등 문학 내외적으로 따져야 할 면이 참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향했던 이들이 대부분 관직 경력에 있는 이들이며 民國 성립 이후 ‘遺老’의 길을 갔다는 이유로 근현대 문학의 정당한 주류에 대한 반동적 흐름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근래 同光體 시인군에 속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변법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는 점들이 언급되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역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근거로 문학사적 평가를 하기는 매한가지이며, 도대체 이들이 梁啓超와 근접한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고 했을 때 詩界革命論과 비교해 보아 그들의 詩學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별반 설득력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遺老로서 퇴행적인 면을 갖는다면 혁명적 문학집단이라고 일컬어

지는 南社의 성원들 중 상당수가 民國 성립 이후 비슷한 길을 갔고 또한 그들의 대표적 詩學 주장이라는 것 역시 尊唐의 복고적인 것이었다고 할 때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21)</sup>

1980년대 중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中國文化傳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은 근현대 문학사 분기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陳平原 등의 ‘20世紀中國文學論’은 그것이 갖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sup>22)</sup> 기왕의 근현대 문학사 서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유의미한 연속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자한 이들의 의도는 그러한 문학을 창조해 내고 향유하는 주체의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20世紀中國文學이란 하나의 유기적 “整體”로서 세계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개방형의 문학이며 “민족의 영혼을 개조한다”는 전체적 주제을 갖는 문학이고 “悲哀”가 핵심적 미학 특징인 문학이라는 선언 속에 암시된 문학 창조와 향유의 주체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구체성을 띠는 실체라기보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中華’를 꿈꾸는 당대 중국인들의 염원이 투영된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서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문학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필자는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中國近代文學의 복잡다단하며 일견 모순적일 수도 있는 양상들이 사대부라는 주체를 상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1) 同光體에 대한 이와같은 정치적 평가의 단초는 清末-民國初 혁명에 동조하는 文人들의 社團이었던 南社의 지도자 柳亞子의 극단적인 宋詩 혐오에서 나타난다. 辛亥革命의 지지자였으며 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수용하여 人民共和國 수립 이후에도 혁명원로로 칭송받았던 柳亞子は 문학적인 견해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宋詩派와 그들이 지향한 宋詩를 비판했다. 혁명의 조류와 계속 함께 했던 그였지만 문학적 활동과 지향의 면에서는 ‘遺老’적이었던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대비가 될 것이다.

22) 이에 관하여는 전형준, <20세기 중국 문학론 비판>(《현대중국문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참조.

## 3-2.

中國에서 전통적으로 ‘글쓰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中國文學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요인이었으며<sup>23)</sup> 근대 시기에 와서도 이와같은 사실에는 변동이 없었다. 적어도 科擧制가 폐지된 후 새로운 학제에 따른 교육을 받고 유학을 거쳐 辛亥革命을 전후로 문필 활동을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문인들이 등장하기까지는 문학활동의 주된 주체는 士大夫-文人이었다. 이들이 부분적으로 ‘자산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의 정치적 지향이 ‘개량적’이었다거나 ‘혁명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들의 ‘자산계급적’, ‘개량적’ 또는 ‘혁명적’ 성향(혹은 그렇지 않았던 이들의 ‘보수적’ 성향)이 이들의 문학 행위에 어떤 결정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士大夫’로서 ‘文人’인 측면, 사대부로서의 문학 행위를 살핌으로서 근대 시기 문학의 추향, 문학관념의 추이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자산계급적’이고 ‘개량적’ 혹은 ‘혁명적’인 성향과 문학 행위 간의 관계는 부수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士大夫’라는 말은 ‘士’ 혹은 ‘士人’, ‘士夫’라는 용어와 통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士大夫란 지적, 문화적인 능력과 자산을 바탕으로 관료로서의 입신과 국가경영에의 참여를 지망하며, 한편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中國 사회 내에서의 상위 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근대 시기 문학활동의 주체를 지칭하는데 ‘士大夫’라는 명칭이 ‘士’나 ‘士人’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中國 전통사회의 지식 계층의 선구이면서 또한 唐宋 이후의 士大夫와는 구체적인 면에서 성격을 사뭇 달라하는 先秦時代의 ‘士’, ‘士人’과 구별 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士大夫-文人’으로 연칭하는 경우 덜 어색하기 때문이다. 또

23) 이는 문자를 장악하고 글쓰기 행위를 담당할 계층이 반드시 세속적 지배 계층이지 않은 않았던 서양 사회나 日本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명확해진다.

한 士大夫라는 용어가 보다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띠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활동의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다 적절한 듯 하다.

현재 史學界에서 좁은 의미로 쓰이는 ‘士大夫’는 宋代의 ‘士大夫’를 지칭하는데 한정되기도 한다. 황제-관료지배체제는 오랜 기간의 발전을 통해 宋代에 상당히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현실상의 ‘士大夫’란 儒家的 교양에 기반한 지식인 관료를 지칭한다. 한편 ‘士大夫’라 하였을 때는 다만 현실적인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儒家 지식인/관료의 형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宋代의 유명한 관리였던 范仲淹은 일찌기 “세상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세상이 다 기뻐한 후에 기뻐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 하여 이상적인 士大夫의 상을 천명한 바 있다. 宋代의 士大夫와는 국가권력과의 관계 등에서 성격을 약간 달리하며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다방면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明清代의 士大夫를 가리킬 때 ‘紳士’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용어는 엄밀히 규정하면 관직경력자와 生員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지칭한다. 中國 근대 시기의 문학 활동의 주체로서의 士大夫 文人을 검토함에는 이상형으로서의 ‘士大夫’를 지향했던 그들의 일면과 실제의 明清代 紳士로서의 행태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中國近代文學의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士大夫 대신 ‘紳士’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타당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법에서 ‘紳士’는 종종 ‘鄉紳’과 같은 말과도 통용되어 ‘지방의 세력가’라는 함의를 강하게 갖고 있다. 紳士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러한 함의가 줄 수 있는 오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24)</sup>

전통 中國 사회에서 士大夫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규정하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다. 더구나 근대 시기에 오면 이들의 존재 기반에 적지 않은

24) 이들 용어와 그 함의에 대해서는 吳金成, 〈明·清時期的 國家權力과 紳士〉(《講座中國史》IV, 지식산업사, 1989)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해당 조목의 용례 참조.

변동이 일어나며 훨씬 복잡한 조건들 속에 놓이게 되므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士大夫를 中國近代文學의 주체로 두고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한 사항은 士大夫 계층 내의 분화와 그 지향의 다원성이라는 측면이다. 明清代 紳士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계층으로서의 이들이 士大夫로서의 이념과 역할로 인해 하나의 단일한 계층으로 묶이면서도 관직 경력 여부와 학위의 고저, 경제적 기반의 차이 등에 따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층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며 下層 紳士의 경우 그 지향과 성격에 있어 다분히 ‘중간층’으로서의 특징을 가짐을 보여준다.<sup>26)</sup> 또한 清代 학술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나듯 지역적으로 士大夫의 사유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문학에 대한 일정 수준에서의 보편적인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험하는 세계에 차이가 있고 사유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에 따라 문학관과 문학적 실천양상에도 역시 일률적이지만은 않았을 터이다. 士大夫의 삶의 양태와 성격의 근대적 상황에서의 특수한 발현 혹은 변질 또한 문제이다. 中國近代文學의 논의에 士大夫라는 주체의 설정이 의미있고 유효하려면 이러한 점들이 모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3.

지금까지의 中國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문학 행위의 주체로서의 ‘士大夫’의 다양한 특징을 무시한 채 ‘封建地主官僚階級’과 같은 명칭 하에 그 부

25) 중국의 사대부 특히 명·청·근대의 신사층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들로 Chung-li Chang의 *The Chinese Gentry*(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55), *The Income of the Chinese Gentry*(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2);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 紳士層의 思想과 行動》(一潮閣, 1973), 〈清代 紳士層의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4); 余英時, 《士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1994) 등을 꼽을 수 있다.

26) 李允碩, 〈明末의 江南‘士人’과 文社活動〉(《東洋史研究》제57집, 東洋史學會, 1997년 1월); 閔斗基, 〈清代 ‘生監層’의 성격〉(《中國近代史研究》, 一潮閣, 1973, 85-131쪽) 참조.

정적 측면에 대한 강조만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입장이 봉착한 문학사 서술 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3-1.'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근간에 와서 변화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가 없지는 않다. 그 한 예로 앞서 2장에서 소개했던 '二十世紀中國文學與區域文化叢書'의 한 권인 《江南土風與江蘇文學》(河南教育出版社, 1995)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 費振鍾은 지역성과 문학을 결부하여 논하고 있는 한편 南朝時代에 형성된 이래 이 지역 문학의 성격을 끊임없이 규정해 온 江南 지역의 '土風'이 어떻게 청말으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江蘇文學의 주요한 특징으로 내재하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 위에서 문학을 해석하되 그것을 생산해내는 주체라는 가장 중요한 매개를 중심에 두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南朝時代에 형성된 특징적인 江南 土風과 그것과 관련된 江南文學의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이 지역 문학의 내적 연속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明清代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이 지역의 士大夫 文人들이 겪었을 주체 성격 상의 변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흘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대 이후 江南의 문학이 과연 여타 시기의 江南文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체 근대문학의 시야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다. 20世紀中國文學論的 視座에서 집필된 것으로 20世紀中國文學의 뿌리와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근대시기 중국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되어 가는가에 대한 탐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근대시기 士大夫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中國의 근대문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는 김진곤의 〈四大 譴責小說에 대한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閔斗基 선생의 清代 士大夫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四大 譴責小說의 작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 동기 그리고 작품의 문학사적인 위상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이런 류의 접근으로서 는 현재까지도 펴 드문 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렇지

만 문학 활동의 주체로서의 士大夫에 대한 성찰에 있어 근대시기 士大夫 文人이 갖고 있었을 복잡한 성격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에는 미치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 등 일부 측면에 대해서만 부각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근래 발표된 연구로 이종민의 〈梁啓超 文學論의 批判的 檢討〉(《韓·中文學의 傳統과 近代》, ‘第30回 東洋學 學術會議 發表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97. 12)는 근대시기 士大夫로서의 梁啓超에 착안함으로써 그의 문학론을 비평하고 있다. 근대 中國의 士大夫像과 관련하여 근거로 삼고 있는 바는 대체로 김진곤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으나 梁啓超라는 개인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대한 주체의 사유와 실천원리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한층 진전된 논의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연구의 예로 이보경의 〈20세기 초 중국의 시공간 -소설이론가들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論集》 第9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7. 8)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근대’ 그리고 “중심-‘주변’ 문제에 관한 우리의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 中國近代文學을 파악하는 기왕의 개념과 틀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소설이론가들의 지리적 분포와 그들의 계층적 성격, 사유형태상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문학(역사)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지배해 온 ‘停滯論’과 ‘整體觀’을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인 문제의식에 있어 필자가 관심을 두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바와 근사한 ‘지역(공간)’과 ‘주체’의 틀거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한 좋은 본보기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4.

문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에 대한 탐구의 학문이라고 할 때 문학 활동의 주체에 대한 세심한 탐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시기 中國의 경우 문학 활동의 주된 주체는 이전 시기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士大夫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五四運動을 전후로 하여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문인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문학관과 문학관념에 대한 탐구는 물론이고 中國에서 문필활동에 종사해 온 士大夫의 주체의 오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五四 이후의 그것에 대한 탐구에도 이러한 주체 성격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방기할 수 없을 듯하다. 국내외적으로 中國 士大夫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 사상사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로 설정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中國近代文學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은 中國 내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학사관의 영향 탓도 있을 터이지만 보다 크게는 인접 학문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왔던 우리 학문의 다소 폐쇄적인 성향 탓도 있을 것이다.

士大夫의 인간을 中國 근대시기 문학 활동의 주된 주체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함에 우선은 기왕의 明清 그리고 근대 시기 士大夫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다양한 문학 현상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문학 행위의 주체와 문학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문학이론의 성과를 흡수하여 사대부적 문학 행위 주체와 이들의 문학 활동간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일반이론의 정립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4. 맺는말

中國近代文學 연구와 관련한 2, 3장에서의 제안은 일차적으로는 문학사의 큰 맥락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실상 작가론의 미비점 보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中國近代文學史에 대한 전체적인 탐구와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의 두 영역 사이에 중간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문학사 흐름의 지역적 특수성과 작



가나 작가군이 갖는 지역적 일반성에 대한 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뿐 아니라 문학사 차원의 큰 맥락에 대한 이해와 개별 작가에 섬세한 이해에 공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문학 활동의 주된 주체가 士大夫的인 성격을 갖는 文人이라고 봄으로써 中國의 근대 상황 속에서 주체가 공유하는 일반적 성격과 私的인 배경을 지니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고려의 사이에 중간 환절을 개입 시킴으로써 근대 시기의 문인과 그의 문학 행위에 대한 탐구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러한 점들에 대해 배려함으로써 나아가 1장에서 제기하였던 바 우리나라에서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안고 있는 넓은 맥락에서의 과제를 보다 온전히 풀어나가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청대-근대 지역 특성 비교〉

行政區域	文化圈		方言區域	도시유형/ 지역내도시 밀도	儒敎的政 治經濟에 편입정도/ 민간상업 경제	清代 학술경향	近代 학술경향	士大夫 文學	비고
東北 諸省				행정형/낮음	강/약				내륙 황히유역
北京	滿洲 燕趙	華北民俗 地理區	北方官話區			官學(理學)	新文化運動	官邊 文學의 성격이 강, 典雅 지향	
河北				행정형/보통	강/중				
山東	齊魯					漢宋 절충 理學 강세			
河南	三晉								
山西									
陝西	陝秦		西北官話區	행정형/낮음	중/약				
西北 諸省					약/약				
四川	巴蜀	西南民俗 地理區	西南官話區	행정형/보통	강/약				
西南 諸省				행정형/낮음	약/약				
湖北									
湖南	荆楚	華中民俗 地理區	湘方言區			理學 강세, 정치지향적	정치지향적 인 理學의 재해석	桐城(湘鄉) 派 漢魏六朝詩 派	長江중류
江西			贛方言區/ 客家方言區	江岸지역: 상업형/보통	江岸지역: 강/중	理學 위주		同光體	長江중류
安徽			南方官話區			理學(桐城)/ 절충적 考證學(일 부)		桐城派 同光體	長江하류
安徽			徽州方言區 (江南一部)						
江蘇	吳		南方官話區 (江北)			考證學, 학술 활동의 전문화 직업화 경향	新學/國故學	唐詩 취향 강 南社	長江하류 동부연해
上海			吳方言區	江南지역: 상업형/높음	江南지역: 강/강		西學	근대적 문학 매체/ 소설 시장 형성	
浙江			越			考證學, 理學, 史學강세	新學/國故學	同光體	
福建	閩		閩方言區	연해지역: 상업형/높음	연해지역: 약/강		新學	同光體	동남부연해
臺灣									
廣東	粵		華南民俗 地理區	粵方言區/ 客家方言區	珠江三角洲: 상업형/높음	珠江三角 洲: 강/강	考證學, 신비주의적 경향의 理學	今文經의 神學的, 新學的 재해석	詩界革命派
廣西					행정형/낮음	약/약			